



군종주보

2018년 4월 8일(제870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자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

신학교는 군대와 비슷합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다른 불편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발만큼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신학생의 앞머리는 눈썹을, 옆머리는 귀를,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발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철학도와 신학도는 많아도 이발사는 없습니다. 이발반에서 봉사하는 신학생들은 월 1회 봉사하러 오시는 미용실 자매님 어깨너머로 보고 배울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찾아가고 싶을까요? 차라리 교수 신부님께 혼나고 말지,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만들 순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발반을 찾는 이가 적어졌던 모양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발실 거울 위에 많이 본 듯한 문구가 붙어있었습니다. “너희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 구절에서 교묘하게 목적어를 생략한 이 글을 보며, 신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투박한 가위질에 소중한 머리카락을 온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이는 영성 훈련의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비주얼을 내어 맡기는 연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영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 목표가 대단히 쉽고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도자가 아닌 우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르쳐준 걸 생각하면 열불이 날만도 한테 말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머리 좀 우스꽝스럽게 자른 게 죄는 아닙니다. 제 판에는 잘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용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기도 뭉하지만, 그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 21) 작은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큰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마침 오늘이 하나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재혁(스테파노) 신부
백골(육군 제3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사도 4,32-35
회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특 시 1요한 5,1-6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요한 20,19-31
영 성 제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1969년의 총지침 276항에 따르면 감실은 사사로이 조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경당에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제단에 모시든지 성당의 뛰어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반면, 2002년의 총지침 314항 시작에 감실을 성당의 한 부분에 모시길 권합니다. 이어오는 315항은 먼저 미사가 거행되는 제대에는 감실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밝히면서 설치 장소를 ㄱ)에서 제대 위가 아니고, 그러면서 제단 안에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ㄴ)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설치하도록 지시합니다. 감실의 자리에 관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초판(1969년)과 수정본(2002년)은 이미 1967년의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성체의 신비”와 1964년의 예부성성의 “훈령”, “세계공의회”에 나오는 “중앙 제대” 또는 “주 제대 중간”이란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당의 한 부분 또는 성당의 뛰어난 자리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원칙적으로 제대와 분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감실은 상존하는 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미사 밖에서가 아니라 제대 위에서 거행하는 성찬례 안에서 희생 제사를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감실은 더 이상 미사거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적합한 성당의 중심 자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후 제사의 우위가 조배나 경배에 앞서 공간 안에서 풍부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성사적인 표시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현장의 원리의 새로운 성과입니다. 성사적인 표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세에 지어진 오래된

제대와 감실의 관계

성당은 제단 가까운 측면 공간에 별도의 작은 제대 위나 제대 가까이에 감실함이나 감실벽에 성체를 모시게 하여 신자들이 사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조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성당 지하에는 항상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경당을 만들었는데 제대 옆에 감실함을 세워 두었습니다. 기도의 내밀함과 안정함은 이러한 형태의 경당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당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는 총지침 315항 나)의 지침에 구체적으로 부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과 가까이에 위치하여 성체를 모시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신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성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제단에서 떨어진 좌측 또는 우측 전면이나 측면에 작은 감실을 모신 경당을 세우는 방법 또한 문헌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체를 모셔두는 곳은 참으로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곳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아야 한다. 곧 신자들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혼자서도 쉽게 다가가 공경을 드리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당 중심 부분이 아닌 곳에 경당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신비 공경예식 9항 1973년)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 | | | |
|---|---|---|---|
| 복 | 음 | 묵 | 상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만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이 중심잡기 조차
힘든 이 짐들을
내려놓고,
좀 쉬자.
좀 쉽게 가자.
그만하면 충분하니
이젠 나와 함께
쉬자.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성인



구에르지노(1591-1666)

17세기 초반 作

캔버스 위 유화 80 x 108 cm

잘츠부르크 미술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왼편의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 깃발을 드시고 자신의 팔을 벌려,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토마스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그림의 강렬한 청색과 적색의 대조,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조는 이 모든 사건의 극적인 면을 더욱 부각한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의 강렬한 빛이 뿜어 나오는 듯하며, 이 빛이 그림 속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빛보다 더욱 강한 빛은 없다. 어떠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부활 제2주일: 동해(육군) 강철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태풍(육군 28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8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4월 10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곳: 4월 12일(목) 18: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공군 준·부사관 영성 수련회

 때: 4월 13일(금) - 14일(토)
 곳: 총북, 멩에목성지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인원 : 1명
 접수 : 4월 20일(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